

NEWS & NEWS

국민들 치과의사 이미지 긍정적 “63.7%”, 친절·전문직·수준높은 진료 만족 치 의신보·한국갤럽 공동 창간 39주년 기념 설문조사

최근 임프란트 폭리, 치과진료비 폭리 공방, 치과에서 빼낸 금니 되 팔아 이익 등 부정적인 치과보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된 가운데서도 10명의 국민들 중 6명 이상이 치과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 의신보가 창간 39주년을 맞아 국내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국민들의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3.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치과의사 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8.7%였으며, '보통/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7.6%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치과의사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72.1%가 '저조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치과의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작다'는 응답이 56.7%를 차지해 다양한 치과의사들의 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1%가 '사회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도덕적 의무 실천에는 8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이번 갤럽의 설문조사에 만족하지 않고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과의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친절함 43.1% ▲전문직 35.0% ▲수준높은 진료수준 14.1% ▲경제적 여유 4.8% ▲사회봉사 2.7%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유로는 '비싼 진료비'가 59.2%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불친절 13.3% ▲고소득 7.1% ▲진료/치료에 대한 두려움 7.1% ▲대중매체 영향 4.1%로 나타났다.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국민들의 61.3%가 '의료봉사'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은 인격수양(21.0%), 학술연마(13.4%), 기부금 기탁(3.4%)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47.7%가 치과의사들에게 저렴한 진료비용을 가장 바라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진료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25.6% ▲진료를 잘 하는 것이 19.7% ▲진료 대기시간 단축이 5.7% 순으로 나타나 치과경영관리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52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95%의 신뢰수준으로 ±4.3%의 표본오차를 보이고 있다.

NEWS & NEWS

“공정한 보도·정론지로 우뚝 서 달라” 치과계 150여명 참석 축하·격려 치 의신보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2005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열린우리당)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올해를 빛낸 명예로운 치과인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치과인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1966년 창간이후 39년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정론직필의 정신을 이어온 보건의료계 최대 정론지 치 의신보는 지난 12월 15일 7시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서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2005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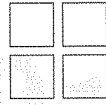
1부 치 의신보 창간 39주년 기념식, 2부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식, 3부 케익커팅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안성모 협회장,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종구 복지부 보건정책관, 김문식 국의원 원장, 이경재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 신영순 한국치정회 회장, 정·관계 및 치과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성모 협회장은 "치 의신보는 지난 66년 창간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치과계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고 치하하고 "이제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언론 본연의 모습인 공정한 보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 정론지로서 우뚝 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대의원 총회 의장은 "치 의신보는 그동안 내용면에서는 소식지에서 정론지로, 외형면에서는 1면 얼굴을 찾기 등을 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치과계 정책대안을 위한 심층 취재와 보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서 치협이 '정책연구소'를 설립, 치과계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이종구 복지부 보건정책관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한 치사를 통해 "치과계 최고의 전문매체인 '치 의신보'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지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비판기능을 이끌어냄으로써 바람직한 여론형성에 앞장, 치과계는 물론 보건의료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론직필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부 '2005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축하케익 절단 및 김정균 치협 고문, 황규선 전의원, 최상목 전 편집인의 건배제의로 치 의신보가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론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스케일링 급여확대 마땅” “급여제한 법적 근거 없고 잇몸 치료 왜곡” 정책토론회서 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후원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관한 ‘스케일링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2월 5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남 연세대 원주 의대 연구강사는 “현재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급여제한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과거 스케일링 급여가 재정문제로 축소됐던 만큼,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우선적으로 급여기준을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또 “영국, 대만, 일본 등 외국사례 검토 결과, 치주 치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활성화 돼 있으며,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치과 개원의들은 치료목적의 전악치석 제거 중 절반이상을 비 급여로 청구하고 있다. 치주 치료가 매우 위축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강사는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고충 받고 있는 치주 질환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 약 1천4백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주 치협 보험이사는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잘 결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을 하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며 “환자에게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부족한 경우 내일 다시 내원 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내원 하지 않으면 보험청구를 못하거나 삭감 당하는

잇몸치료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과의사는 되도록 하루에 스케일링을 포함해 치료를 끝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면서 “현재 규정대로라면 잇몸이 나쁜 국민들에게는 치료할 기회를 빼앗아가게 되는 만큼, 치석제거 급여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식 남서울대 치위생과 교수는 “예방목적이나 스케일링으로만 치료가 끝나면 급여를 인정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 받으라는 것”이라며 “장부가 재정이 모자라 필수 급여항목인 치석제거 급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했다면 재정상태가 좋아진 현재 급여 제한조치를 푸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치석제거는 의학적 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정책추진의 경과 등으로 볼 때 등 모든 기준이 적합한만큼, 즉각 추진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팀장이 내년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천2백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우선 순위가 식대와 중증질환 부분이라고 밝혀 단기간에 스케일링 급여확대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토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부정책에 스케일링 보험확대 적용방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치과의사들이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명옥 의원이 참석, 스케일링 급여확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인턴 320명·레지던트 319명 확정 국군수도병원 등 신규 수련치과병원 지정, 복지부 승인

2006년도 치과의사 인턴의 정원이 320명으로, 레지던트의 정원이 319명으로 최종 승인됐다.

또 인턴 수련 치과병원으로 국군수도치과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롭게 승인돼 2006년도 인턴수련 치과병원은 39개 기관이 됐다.

아울러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으로 각각 6개와 4개 기관이 새로 지정돼 2006년도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은 35개 기관,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수련 치과병원은 16개 기관이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을 이같이 승인했다고 지난 12월 9일 밝혔다.

2006년도 인턴 정원은 2005년 정원인 301명에 비해 6.3%인 19명이 증가, 320명으로 승인됐으며, 레지던트 정원은 2005년 정원인 284명에 비해 12.3%(35명)가 증가한 319명으로 승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레지던트 정원과 관련 구강내과, 구강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비인기 전문과목에 대해 치협에서 건의한 정원

보다 1~5명 가량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비인기 전문과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인턴수련 치과병원 지정과 관련 국군수도치과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문치과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롭게 승인돼 2006년도 인턴수련 치과병원은 39개 기관이 됐다.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 승인에서는 서울위생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리빙웰치과병원, 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고려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6개 기관이 새로 지정돼 35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레지던트 수련 치과병원과 관련 국립암센터,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을지대학병원 등 4개 기관이 새로 승인돼 16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한편 복지부의 승인이 늦어져 200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위한 원서교부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로 변경됐다.